

소동물 임상 의 새로운 분야—치과

오 호 성*

묘하게도 기름값의 인상은 소동물임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쳐 왔다. 1차오일쇼크때도 한참 상승세를 타던 소동물경기가 곧두박질치더니 이번에는 걸프전쟁 때문에 진료건수가 상당히 줄고있다고 하니 안타깝기만 하다. 물론 그동안의 경제성장, 국민소득의 향상, 생활방식의 변화 등으로 1차오일쇼크때처럼 완전 곧두박질치지는 않으리라 생각되지만 위기극복을 위한 새로운 진료영역의 확대 등 개업수의사들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인것 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과거 일부 부유층만이 애완동물을 기르던 시대를 지나 막 대중화되려는 현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애완동물 기르는 것을 보편화시키고 이들에게 수의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 동물병원을 찾게 할 수 있을까? 이미 애완동물을 기르는 가정은 물론 기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도와주어야 하고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 것인가? 앉아서 동물병원을 방문하는 고객을 기다리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고객을 늘리기 위해 개업수의사들은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으며, 해야만 하는가? 입에서 나는 냄새때문에 애완견을 기르기 어렵다는 고객에서 당신은 어떤 처치와 조언을 해줄 수 있는가? 하는 등등을 생각해 보는 것은 새로운 진료영역확대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성을 따져야 하는 대동물임상과는 달리 소동물임상은 적극적인 마케팅개념의 도입으로 일년에 한번 병원에 들리는 고객을 두번으

로 그리고 전혀 동물을 기르지 않던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애완동물을 갖게해 당신의 고객으로 만들수가 있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서비스(예를들면 치과)의 제공은 고객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줌과 동시에 동물병원의 수입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에 틀림이 없다.

애완견 치과하면 상당히 생소한 분야이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불모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애완동물 역사가 무척이나 긴 서양에서도 치과가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소동물개업수의사의 45%가 치과를 가장 유망한 분야로 꼽고 있으며(그림 1 참조), 그만큼 동물병원의 수입원으로서 중요하고 또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에게도 애완동무(특히 애완견) 치과질환은 큰 관심거리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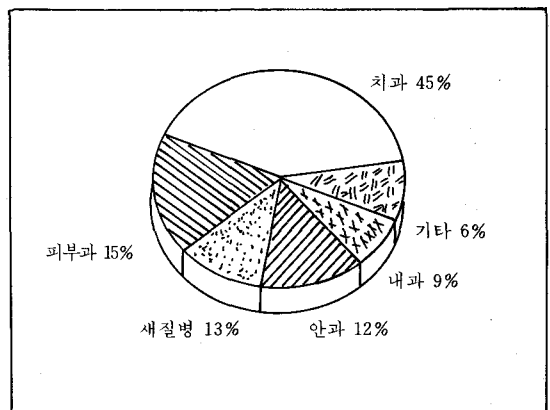


그림 1. 미국에서 가장 유망한 소동물 임상분야

* 스미스클라인 비참 동물약품 한국사무소

그러나 미국에서도 소동물치과가 자리잡기까지는 개업수의사들의 각고의 노력이 있었으며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애완견의 치과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예방 및 치료법 그리고 미국 개업수의사들이 치과진료를 정착시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경주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강아지는 2~4주령부터 유치가 나기 시작해서 12주령까지 총28개의 유치가 났다가 3개월령 부터 앞니부터 영구치로 바뀌기 시작해 약 5~7개월령에 총42개의 영구치를 갖게 된다. 사람과는 달리 개의 영구치는 윗니가 아랫니 보다 2개가 적다. 요크셔테리어 및 푸들에서는 유치가 제대로 빠지지 않아, 영구치가 제대로 나오지 못해 감염증 등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개 애완견의 치과질환은 2세 이후부터 많이 발생한다. 구강을 검사하면 다른 질병을 검사하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동물병원을 방문하는 애완견은 구강을 검사하고 측주에게 구강상태를 설명해주는 등, 치과질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현재 미국에서 수의사들이 흔히 행하는 치과처치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표 1).

표 1. 미국 수의사들이 행하는 치과처치

1. 치은소파술(Subgingival curettage)
2. 치근활택술(Root planning)
3. 치주낭제거술(Elimination of deep subgingival pockets)
4. 치은절제술(Gingivectomy)
5. 충치치료(Treatment of caries)
6. 치아파절치료(Repair of fractured teeth)
7. 치수노출치료(Treatment of pulp exposed on worm teeth)
8. 치주염으로 인한 발치(Extraction of teeth having advanced periodontal disease)
9. 치면세마(Polishing)
10. 가정에서의 치아관리법에 대한 조언(Counseling clients about home dental care)

위에서 열거한 사항들은 거의가 무척 생소한 것들이고 대부분의 경우 흡입마취상태에서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정에서 당장 개업수의사들이 실시하기에는 장비로 인한 기술적인 어려움외에도 인원 등의 문제점때문에 비현실적인 것이 사실이다. 애완동물의 치과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미국에서 조차 수의과대학에서는 치과강의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수의사들은 치과의사들에게 기술 습득을 하고 있으며 아직 미국수의사회(A.V.M.A.)에 정식 전문의과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현재 미국에 약 30여명의 치과 전문수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함), 곧 정식으로 인정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면 위에 열거한 여러가지의 치과처치중 우선 손쉽게 개업수의사들이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 애완견 측주들이 치과중 어떤 질환에 관심이 있으며 개업수의사들의 도움이 어떨 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대답에서부터 찾을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측주들에게 그들의 애완견에 교정이나 스케일링 등을 해야한다고 말한다면 아마도 그들은 수의사를 이상하게 생각하며 결코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구강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고 불평하는 측주에게 애완견의 구강을 열어 치주염, 구내염 혹은 치석을 보여주면서 악취가 나는 원인을 설명하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예방을 위해서 해야 할 사항들(예, 칫솔질, 구강악취제거제분무 또는 치석생성방지를 위한 나일론 끈 사용등)을 권장한다면 아마도 상당수가 수의사의 조언을 받아들일 것이다.

애완견의 치과질환에 대한 인식수준이 거의 전무한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구강에서 나는 악취문제로 부터 측주들에게 치과질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나아가 위에서 열거한 기타 전문적인 치과적처치로 연결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애완견의 구강에서 심한 악취가 나는지 알아보자.

사람에서도 그렇지만 구강에서 악취를 만들어내는 치주염 등 구강염증의 시작은 잇몸과 이 사이에 치석이 끼면서 부터이다. 치석이 생

기는 정도는 개의 품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며 큰 품종의 개에서 보다는 주로 작은 품종의 애완견에서 많이 생기고 또한 딱딱한 사료(섬유질이 많이 포함된)를 먹는 개에서 훨씬 더 치석이 많이 생긴다고 한다. 작은 품종의 개에서 치석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큰 품종보다 이와 이 사이가 좁기 때문이며 딱딱한 사료를 많이 먹는 개는 사료가 이와 잇몸을 접촉하면서 치석의 생성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드러운 사료부스러기는 쉽게 이와 잇몸 사이에 끼게 되고 세균이 자라기 좋게 되어 플라그(Plaque)로 발전되는 것이다. 플라그는 생성된지 24시간 이내에는 칫솔질이나 천으로 가볍게 문지르면 제거할 수 있지만 시간이 경과하면 타액중의 칼슘염과 결합하여 단단한 치석(tartar)으로 변하는데 이것은 치과기구로 제거하지 않으면 잘 없어지지 않는다. 황갈색 혹은 회갈색의 치석이 잇몸부에서 축적되며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전체를 뒤덮게 된다.

플라그 및 치석은 모양도 보기 싫지만 문제는 이것들이 세균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치은염이나 치주염이 쉽게 발생되어 구강에서 심한 악취를 낼뿐 아니라 결국에는 이가 빠져 버리게 되는 것이다. 만약 더 발전하여 치근에 농양이 생기게 되면 외견상으로도 개의 눈 밑이 크게 부어오르는데 이 경우에 침샘이 막히기 때문이다. 또한 분비된 독소가 전신을 순환하게 되어 신장, 심장 등 내과질환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러나 수의사들이 애완견의 구강을 정기적으로 검사하지 않으면 축주들은 통상적으로 문제가 아주 심각할때(예: 구강악취가 아주 심할때) 병원을 찾아오기 때문에 치치가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다.

어떻게 하면 치과질환(치주염, 치은염 등 주로 악취를 유발하는 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까? 현재 미국에서 시행중인 Home Dental Care 프로그램을 소개해 보기로 한다.

1. 양치질

아주 부드러운 칫솔을 이용하여 동물용 치약으로(사람용 치약은 너무 독해서 동물에 사용하면 위장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음) 하루 한번

양치질 시키면 치과질환의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애완동물에게 양치질을 적용시키는데는 상당한 시간과 축주의 노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어릴 때부터 시작하면 할수록 적용이 쉽다고 한다.

2. 구강스프레이

현실적으로 칫솔질보다 훨씬 사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현재 미국에서는 양치질보다 그 인기가 점점 더 높아가고 있는데, 스프레이는 대부분 효소제를 함유하고 있어 음식물찌꺼기를 제거할 뿐아니라 냄새도 분해하기 때문에 축주들이 아주 좋아한다고 한다. 그리고 또한 세균이 발육을 억제하기 위한 소독제도 들어있어 플라그나 치석의 형성을 막아 준다. 그러나 사람용 가글은 개에 사용하면 위험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구강을 헹구낸후 가글액을 뱉어낼 수 있지만 동물들은 뱉어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3. 치아 운동용 끈이나 기구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딱딱한 사료는 먹는 개의 플라그나 치석의 생성율이 훨씬 낮은 것과 같은 이유로 개가 가지고 놀기 좋은 끈 몽치나 윙통볼통한 기구 등을 주면 이들을 씹고 노는중에 잇몸사이에 낀 음식물 찌꺼기는 물론 이미 형성된 플라그나 치석도 제거되기 때문에 치과질환의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다음으로 어떻게 하면 애완견 축주들에게 수의사가 제공할 수 있는 치과서비스를 받아 들이게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지극히 간단하다. 두말할것 없이 축주들에게 지속적으로 치과질환에 대한 중요성과 수의사들이 제공할 수 있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오랜 시간과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겠지만 수의사들이 반드시 해야만 될 일이며 치과가 소동물임상중 장래가 가장 유망한 분야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고 시작해야 할 것이다.

수의사들은 우선 어느 축주부터 치과질환에 대해 이야기할 것인가를 선정해야 한다. 두말할 것 없이 단골고객(정기적으로 자주 병원을 찾는 고객)으로 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다. 이들에게 1년에 최소한 2회이상 치과질병과 예방법에 대한 편지를 보낸다. 치과질환에 대한 그림이나 도표 등을 보여 축

주들의 이해를 돕는다. 또 적극적으로 축주들에게 반복해서 치과질환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 병원에 근무하는 수의사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치과질환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 그리고 다음의 사항들을 치과 마케팅계획에 접목시킨다.

1. 당신의 목표(어느 축주를 언제까지 이해시킨다 등)를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2. 신속한 결과를 기대하지 말것
3. 시청각교재(비디오, 그림도표 등)를 이용하여 축주들의 이해를 도울것
4. 구강모형도 등을 이용하여 좀더 생생하게 축주들

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할것

5. 축주들을 교육한후 3일쯤 뒤에 축주들의 태도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볼것

위의 사항들을 실행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정보인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애완견치과에 대한 정보가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개업수의사 각자가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하여 애완견 치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상호교환하는 노력도 중요하리라 생각하며 아울러 새로운 진료영역 및 고객확대를 위한 소동물임상수의사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개념의 인식 내지는 도입을 촉구하고 싶다.

■ 신간안내 ■

이장락 풀이 동물약품해설

4·6배판, 양장, 902면, 25,000원
1990. 11. 30 : 서울대학교 출판부 발행

이 책은 "동물약품공정서"(1986. 6. 27. 농수산부 제정·고시; 동물약품규격 기준서) 수제약품 371품목(사료첨가제 포함), 질병치료에 쓰이는 그밖의 동물약품 404품목, 야생동물포획용 약물 21품목, 도합 796품목의 동물약품에 관해서 그 성상과 작용 그리고 각종 동물(가축, 가금, 실험동물, 애완동물, 애완동물, 야생동물, 야생조류 등)을 위한 응용을 소상히 풀이하고 있다. 이 책의 내용은 최근에 출판된 미국계 관련전문서적 10종과 영국계 관련전문서적 6종이 바탕이 되어 있다.

이 책은 그 내용으로 보아 수의사와 수의학도, 동물약품 제조 및 판매업소, 동물원, 일반가축가금사육장, 사료공장, 실험 동물사육장, 실험동물을 다루어야 하는 제약업소와 학술연구기관, 애완동물사육업소, 동물애호가 등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 분명하다.

이 책의 필자는 대학에서 40년간 수의약리학을 강의했고 그동안 몇가지의 관련전문서적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에 필자는 대학에서 정년퇴임하기에 앞서 관련분야에 보답하는 뜻에서 이 책을 집필했다. 이 책을 이용하시는 분은 이 책 필자의 염원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대한수의사회로 25,000원의 우편환(송료포함)을 보내시면 된다.